



배포 일시	2022. 10. 27.(목)		
담당 부서	주택토지실	책임자	과장 이장원(044-201-4420)
	주택공급기획과	담당자	사무관 최연준(4423)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신혼부부 등 각 계층별로 균형있게 공급하겠습니다

< 보도 내용 (경향신문, 10.27(목)) >

◆ 서울에 분양할 ‘윤석열표 청년주택’, 신혼희망타운 물량에서 빼왔다

□ 과거 공공분양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, 신혼부부에 집중 공급되어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.

* 공공분양 공급물량 `18~`22년 간 총 14.7만호 중 신혼희망타운 5.4만호(37%)

○ 또한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층과 서민들에게는 높은 분양가, 부족한 공적 금융지원 등으로 내집 마련의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은 공공분양 공급 물량을 50만호로 대폭 확대하고, 청년·신혼부부·생애최초 구입자·4050 무주택 서민 등 다양한 계층에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특히, 신혼부부만을 위한 공급물량도 기존 8만호에서 15.5만호로 2배 수준으로 늘리며, 청년 외 무주택 4050계층을 위한 물량도 약 5만호에서 16만호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만큼,

○ 일부 특정 입지의 공급 물량이 신혼희망타운 유형에서 다양한 계층이 입주가능한 새 정부의 나눔형 유형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- 아울러, 그간의 집값 급등 및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내집 마련 부담 증가를 감안할 때,
 -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을 위해서도 기존 신희희망타운 방식*보다는 시세 70% 분양가(나눔형) 및 임대 거주 후 분양(선택형) 등 새로운 모델이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,
 - * 향후 주택 매각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 적용
 - 기존 신희희망타운은 전체 물량이 3~4인 가족에게는 협소한 46~55㎡ 물량으로 공급되었으나, 향후 새로운 모델(나눔형, 선택형, 일반형)에서는 3~4인 가족에게 적합한 84㎡ 등까지 넓은 면적의 물량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.
 - 미혼 청년 등은 46~59㎡ 위주, 신혼부부, 중장년층 등은 84㎡ 위주 등 가구원수에 맞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청약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 - 아울러, 민관공동 사업, 어린이집 등 다양한 육아 시설과 연계, 생애주기에 따른 가변형 평형 적용 등으로 아이 키우기에 보다 좋은 형태로 설계할 계획입니다.
- 앞으로 정부는 「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」을 통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·신혼부부·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.